



콘서트 무대 펼치는 방탄소년단

BTS “그래미는 뛰어넘을 장벽... 도전할 수 있어 감사”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년 연속 후보에 오른 ‘그래미 어워즈’(Grammy Awards)를 두고 아쉬움과 의욕을 동시에 드러냈다.

방탄소년단의 승가는 2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피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어렸을 적 그래미 시상식 무대를 보며 자라왔기에 아직도 후보에 올랐다는 게 설레고 기대도 된다”며 “당연히 쉽지는 않겠지만 뛰어넘을 장벽이 있고, 도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며 “두 번 찍어서 넘어가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방탄소년단은 올해 ‘버터’(Butter) 인기에 힘입어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A)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Artist Of The Year)를 거머쥐었다. 아시아 아티스트가 이 상을 받은 것은 이들이 처음이다.

방탄소년단은 음악계 최고 권위로 꼽히는 ‘그래미 어워즈’(Grammy Awards)에서도 2년 연속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후보에 올랐으나 아쉽게

2년 만에 LA서 대면 콘서트... “새로운 챕터 시작, 한국도 예정”

도 분상 후보에는 지명되지 않았다. 리더 RM은 이를 의식한 듯 “한국에서 시작한 아티스트로서 우리가 가진 정체성, 언어의 한계점 등 보이지 않는 벽이 아직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진심을 다해 우리가 잘하는 것을 퍼포먼스로 보여드렸다. 이런 작은 순간이 모여서 오늘의 기적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방탄소년단은 전날 시작된 ‘퍼미션 투 댄스 인 스테이지 - LA’로 약 2년 만에 아이미(방탄소년단 팬)를 대면했다. 2013년 데뷔 이래 수많은 무대 위에서 본 이들에게도 이날은 특별한 경험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승가는 “지난 2년간 (대면) 공연을 하지 못하면서 생각해보니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장벽을 이겨내왔더라”며 “앞으로 어떤 장벽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딪힐 수 있는 게 우리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RM은 “2년 만에 투어를 다시 시작하고 대면 콘서트를 하게 됐는데, 이것은 새로운 챕터(章)의

시작이라고 느낀다”며 “이번 콘서트를 통해 방탄소년단이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여드릴 것”이라고 기대를 주문했다.

진은 “이 콘서트 이후로 한국에서도 다시 콘서트를 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예정도 있다”고 귀띔했다.

방탄소년단은 2017년 AMA로 미국 시장 데뷔 무대를 치른 이래 올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2주 1위, AMA 대상, 그래미 어워즈 2년 연속 노미네이트 등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승가는 이 같은 성공을 두고 “AMA에서 2년 만에 대면으로 관객을 본 것도 너무 기쁘고, 플러스로 좋은 결과가 나서 기뻐다”며 “우리를 보고 화양연화(花樣年華)아름답고 찬란한 시절”이라고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국은 “AMA 같은 자리에 가면 아이미의 합성이 정말로 큰 힘이 많이 된다”며 “어제 콘서트에서도 도움이 많이 됐다. 콘서트나 시상식에서 아이미 합성의 가치는 너무나 크다”고 짚었다.

방탄소년단은 노래와 춤 말고도 세계를 향해 단

지는 목직한 메시지로도 ‘선한 영향력’을 과시해왔다. 이들은 인종차별에 반대하거나 청년 세대의 용기를 북돋워 주기도 하고, 코로나19에 맞서 백신 접종을 중요성도 설명했다.

제이홉은 “한 세대의 목소리가 돼 이를 대변한다는 것이 낮간지럽기는 하지만 막중한 책임감이 따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그저 좋아하는 음악을 하고 이를 공유해 영광이었을 뿐인데, 그것(영향력) 또한 방탄소년단의 음악이 가진 힘이자 에너지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이날 간담회에서 한 발언에는 계속 성장해 가는 모습이 투영돼 있다.

“성공에 대한 기준을 두지 않으려 합니다. 그 기준을 정해버리면 거기에 다다르려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로해지기 때문이죠.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이홉)

“성공을 100%라 하면 50%는 아이미, 멤버 7명이 각자 5%, 나머지 15%는 하이브와 빅히트뮤직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트로피라고 따지면 제가 차지하는 부분은 아주 작은 꼬트머리에 불과하죠. 내가 만든 성공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겸손을 유지하게 됩니다.” (RM) /연합뉴스

tvN ‘살인자의 쇼핑목록’

이광수·김설현·진희경 주연



이광수 김설현 진희경

tvN 새 드라마 ‘살인자의 쇼핑목록’ 측은 배우 이광수, 김설현, 진희경이 주연으로 낙점됐다고 최근 밝혔다.

‘살인자의 쇼핑목록’은 한 아파트 인근에서 시체가 발견되자 지구대 순경, 동네 마트 사장과 그의 아들이 마트 영수증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광수는 과거 암기 천재였지만 현재는 9급 공무원 삼수생인 MS마트 사장 아들 안대성 역을, 김설현은 대성의 연인이자 오동지구대 열혈 순경 도아의 역을, 진희경은 MS마트 사장 정명숙 역을 맡아 연기한다.

영화 ‘탐정: 리턴즈’·‘미장: 사라진 여자’ 등을 연출한 이인희 감독과 드라마 ‘윈티드’·‘오늘의 탐정’ 등을 집필한 한지완 작가가 의기투합한 이 작품은 내년 상반기 방송된다. /연합뉴스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12월 22일 개봉

스파이 액션 신드롬을 일으킨 ‘킹스맨’ 시리즈의 프리퀄 영화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가 12월 22일 개봉을 확정하며 연말 극장가 대전에 가세했다. 매슈 본 감독이 연출한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2014)는 국내에서 612만명의 관객을 동원했고, ‘킹스맨: 골든 서클’(2017)도 494만명의 관객을 더했다.

두 영화는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외화로는 역대 흥행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4년 만에 돌아오는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위협할 전쟁을 모의하는 역사상 최악의 폭군들과 범죄자들을 막으려는 한 사람과 그가 운영하는 독립 정보기관 ‘킹스맨’의 기원을 그린다.

레이프 파인스가 평화주의자 리더이자 킹스맨을 이끌은 옥스포드 공작을, 해리스 디킨슨이 열정과 패기 넘치는 킹스맨의 새로운 멤버이자 옥스포드 공작의 아들인 콘래드를 연기했다.

12월에는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외에도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메트릭스: 리저렉션’ 등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와 한국 영화 ‘킹메이커’ 등이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연합뉴스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
문체부, 12월 1일~25일 종교계 등과 캠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계 등과 함께 다음 달 1~25일 캐럴 활성화 캠페인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종교계·지상파 방송사·음악 서비스 사업자와 함께 여는 이번 캠페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영수 정 추기경이 캐럴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연말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자고 제안해 시작했다.

캠페인 기간 멜론, 바이브 등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은 캐럴 홍보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와 일반인에게 이용권(30일권) 총 3만 장을 제공한다. KBS, MBC, SBS 등은 채널별 라디오 주요 프로그램에 캐럴 기획코너를 새롭게 만들고 보이스 라디오 자막 등을 통해 캐럴과 캠페인 광고를 송출한다. 또한 저작권위원회는 누리집(공유마당)에

무료 제공 캐럴 22곡을 공개하며, 문체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은 캠페인 기간 ‘공유마당’ 캐럴 음원을 문체부 누리소통망(SNS)에 소개한다.

아울러 캠페인 참여 기관들은 앞으로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 자주 찾는 커피전문점, 일반음식점, 대형마트 등의 매장에서 캐럴을 가급적 많이 재생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저작권료 납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매장에서 캐럴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일부 지적을 고려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음악 저작권 관련 4개 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매장음악공연권료 불편신고센터’(perf.or.kr)와 상담전화(1811-7696)를 통해 저작권료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이번 홍보 행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각 음악서비스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연합뉴스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